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 (2026년 6월 호)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2026년 학위수여식 개최

고(故) 박대희 목사에게 추서 명예신학박사 학위 수여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ST)은 2026년 5월 19일 졸업식을 거행하고 39명의 졸업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하였다. 올해 졸업생 가운데 16명(41%)이 한국 및 한인 디아스포라 학생들로, CST 공동체 안에서 한국 학생들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과 지속적인 성장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올해 졸업식의 가장 뜻깊은 순간 중 하나는 고(故) 박대희 목사에게 추서 명예신학박사(Doctor of Divinity) 학위를 수여한 일이었다. 박 목사는 평생을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 그리고 차세대 지도자 양성에 헌신하며 세계 감리교회와 한인 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사진: 박성숙 사모, 고 박대희 목사를 대신하여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다>

박 목사는 한국에서 태어나 신앙과 학문의 길을 걸었으며, 이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목회와 선교 사역에 헌신하였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지역 교회를 섬기며 수많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였고, 특히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였다. 또한 세계 곳곳의 감리교회와 협력하며 선교적 비전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박 목사의 삶은 단순히 한 지역 교회를 넘어 세계 감리교 공동체를 향한 섬김의 여정이었다. 그의 신실한 목회, 지도력, 그리고 복음에 대한 헌신은 오늘날에도 많은 목회자와 신학생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다. 박 목사는 CST를 위하여 영구 장학금 설립 운동을 시작하여 백만불을 모금한 바 있으며, 그 기금은 현재 3백만불이 넘었다. CST는 그의 평생에 걸친 공헌을 기리며 이번 졸업식에서 추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특히 이번 학위 수여식에는 박대희 목사의 부인인 박성숙 사모(97세)가 직접 참석하여 남편을 대신해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97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무대에 오른 박 사모는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와 기립 환영을 받았다.

학위를 받은 후 박 사모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소감을 나누었다. “남편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목회는 그분의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남편의 삶과 사역을 기억해 주시고 honor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을 것입니다.”

이어 그는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상은 우리 가족만의 영광이 아니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과 교회 공동체 모두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감사를 전했다.

박 사모의 진심 어린 소감은 졸업식에 참석한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특히 한 세기에 가까운 삶을 살아온 신앙인의 품격과 평생 목회자의 동반자로 살아온 헌신이 고스란히 전해지며, 박대희 목사가 남긴 신앙과 섬김의 유산을 더욱 뜻깊게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올해 졸업식에서는 여러 한국 및 한인 학생들이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목회학 박사 총장상(Presidential Award)은 이규운 박사와 이주영 박사가 수상하였다. 이 상은 학문적 우수성과 지도력,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여되는 CST의 최고 학생상 가운데 하나이다. 김용화(D.Min.) 박사는 한국 감리교 교육국 총무상(General Secretary of the Board of Education Award of the Korean Methodist Church)을 수상하며 학문적 성취와 교회 지도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성진(M.Div.) 학생은 CST 공동체 안에서 예술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공로를 인정받아 잭 쿠크건상(Jack Coogan Award for the Creative Use of the Arts in the Life of the CST Community)을 수상하였다. 또한 박성진 학생과 송영한(M.Div.) 학생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한국 동문회가 수여하는 동문회상을 받았다.



<사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2026년 졸업식 전경>



<사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2026년 학위수여식 중>



<사진: 학위수여식 후 졸업생과 가족, 교수진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수진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이경식(Kyungsig Samuel Lee) 국제협력 수석부총장은 학생들의 추천과 평가를 바탕으로 수여되는 Fisher Faculty Teaching Award를 수상하였다. 김남중 교수는 연합감리교회 고등교육사역부(General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Ministry)가 수여하는 Excellence in Teaching Award를 받았으며, 김용환 교수는 올해의 Fisher Adjunct Award를 수상하여 탁월한 교육과 학생 지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진: 2026년 교수상 수상자들(왼쪽부터 이경식, 김남중, 김용환 교수)〉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은 올해 졸업생들을 배출하며 교회와 사회를 섬길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였다. 특히 전체 졸업생의 41%를 차지한 한국 및 한인 학생들의 활약은 CST가 세계적이고 다문화적인 신학교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ST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을 양성하며 교회와 사회를 위한 지도자 교육이라는 사명을 계속 감당해 나갈 것이다.

CST 한인학생회 졸업 및 종강 예배 행사 개최

지난 2026년 5월 18일, CST 한인학생회 주관으로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졸업 예배 및 축하 행사가 'Hodori' 식당에서 개최되었다. 학업 과정을 무사히 마친 졸업생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졸업생과 재학생, 교수진 및 목회자 등 총 32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 CST 전체 졸업생은 총 39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한인 학생은 16명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해 현지 내 높은 비중과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행사는 총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사진: 이해인 전도사가 졸업 및 종강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사진: 가족과 함께 졸업 및 종강을 맞이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다.>



<사진: 졸업 및 종강 파티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부 졸업 예배는 한인학생회 부회장 이해인의 사회와 기도로 시작되었으며, 월서연합감리교회 이영성 담임목사가 설교를 맡아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CST 부학장 김남중 교수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으며, CST 송민환 교수의 식사 기도와 함께 풍성한 만찬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2부 순서는 한인학생회 회장 박성진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졸업생들이 직접 학업 소회와 향후 활동 계획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되었다. 올해 학위를 취득한 한인 졸업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철학 박사(Ph.D.): Mark S. Kim, 정희영
- 목회학 박사(D.Min.): 김연경, 김태광, 김혁교, 최진모, 이규성, 이규운,
이주영, 인병재, 이병희, 김용화, 백두산, 한태희
- 목회학 석사(M.Div.): 박성진, 송영한

소감 발표 순서에서는 이규운 목사,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김혁교 목사를 대신해 참석한 박희준 사모, 그리고 송영한, 박성진 졸업생이 차례로 치열했던 학업 과정에 대한 소회와 더불어, 앞으로 펼쳐갈 사역 계획과 비전을 공유하며 큰 울림을 주었다.

졸업생들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CST 이경식 부총장과 벨리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 담임목사가 각각 따뜻한 격려사를 전했다. 고된 학업을 마친 졸업생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독려했다. 행사는 국제협력처에서 준비한 기념 선물을 졸업생들에게 전달하는 순서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따뜻하게 마무리 되었다.



<사진: 이규운 목사(왼쪽)와 김혁교 목사를 대신해 참석한 박희준 사모>



<사진: 송영한 졸업생(왼쪽)과 박성진 졸업생>

새로운 시작을 향한 졸업생들의 이야기

지난 호에서는 M.Div. 및 Ph.D. 과정 졸업생들의 소감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D.Min. 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바쁜 사역과 삶의 현장 속에서도 배움의 여정을 이어온 이들의 고백은 학문의 결실을 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자 새로운 시작을 향한 다짐입니다. 졸업생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께도 작은 격려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 김혁교 목사, D.Min. '26〉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클레어몬트 목회학 박사과정을 졸업한 김혁교 목사입니다. 2011년 처음 유학을 준비하였지만 예상하지 못한 여러 상황 속에서 언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나게 된 클레어몬트는 제게 특별한 두근거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장로교에서 사역하다 감리교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은 기대와 함께 낯설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과 소외감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클레어몬트 공동체 안에서 만난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의 존중과 따뜻한 환대는 제 자신을 더 넓은 이해와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매 학기의 수업은 제 삶과 사역을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며 다음세대를 위한 목회를 이어가고, 평일에는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목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질문에 클레어몬트에서의 배움은 내 삶과 사역을 깊이 들여다보게 했으며, 흩어져 있던 삶과 사역의 조각들을 하나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학업 중 사역지가 캐나다 밴쿠버로 옮겨졌고,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연구가 실제 목회 현장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에 부모를 두고 이주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상담과 돌봄으로 목회적 실천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클레어몬트 목회학 박사과정은 제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목회적 갈등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했습니다. 갈등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이해와 치유, 그리고 변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역의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은 끝없는 내려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으로 인도하시는 통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졸업을 함으로 또 다른 새로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 배움이 앞으로도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목회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걸어주신 모든 교수님들과 목사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목회학 박사 과정을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그 과정 가운데 많은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과 동료 목회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을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다시 공부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첫 학기, 첫 수업 시간에 설렘 반, 두려움 반의 마음으로 참여했던 기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목회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저에게 위로를 주고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잘 선택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배움의 과정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사실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진: 이규성 목사, D.Min. '26〉

이 배움의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지식들, 새로운 사람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늘 겸손하게, 혼자 힘의 아님 함께하는 힘으로 해야 하는 것이 목회임을 배움과 교제를 통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노인 성도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실행한 경험은 아마 제 목회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속도와 효율성을 위해 내가 성도들을 이끌고 달려가는 것이 나의 목회였다면, 앞으로는 속도와 결과에 대한 스트레스를 내려 놓고 조금 늦더라도 함께 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목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크고 많음의 양을 추구하는 양적 목회, 세상적인 가치관과 다를 바 없이 변질된 목회가 아니라, 작고 또 적더라도 질을 추구하는 질적 목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목회를 추구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클레어몬트를 통해 다시금 회복하게 된 저의 목회자로서 다짐입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의 연구 참여자이자 나의 동반자인 노인 성도들을 목회의 대상이 아닌 동역자로서 늘 귀 기울이고, 함께 목표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노인 세대 외에 다른 모든 세대들도 그와 같은 동역자로 인정하고 함께 한 걸음 씩 나아가갈 것입니다. 이제 클레어몬트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라는 전환점을 돌아 새롭게 시작되는 나의 목회 후반전은 더욱 의미 있고, 기쁨이 넘치는 목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응원하며 함께 해 준 가족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사진: 이규운 목사, D.Min. '26〉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을 졸업한 이규운 목사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는 헌신으로 감당하는 것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목회학 박사과정에 참여하며, 목회자의 배움과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업과 연구의 과정을 통해 막연했던 목회적 고민이 정리되었고, 교회와 사회를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논문에서 “국가가 신앙이 될 때: 노년 한국 크리스천의 국가 상징 내면화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노년 세대 한국 크리스천들의 삶의 기억과 상처, 그리고 신앙의 의미 체계를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었고,

저는 그 과정에서 노년 세대 한국 크리스천들의 삶의 기억과 상처, 그리고 신앙의 의미 체계를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었고, 교회가 세대와 이념의 갈등 속에서 어떠한 치유와 화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근거이론 분석 과정을 통해 노년 세대의 신앙과 국가 상징이 상호작용을 하며 강화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공명이론”을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형성되는 신앙과 국가의 의미 구조를 실천 신학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교회 안에서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목회적 실천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클레어몬트 목회학 박사과정은 제게 단순한 학위 과정이 아니라, 실제 목회 현장의 질문과 아픔을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실천적으로 응답하도록 이끌어준 귀한 여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졸업의 과정은 제 인생에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내와 딸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여 졸업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고, 졸업식에서는 총장상(President's Award)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긴 학업의 여정을 묵묵히 함께 견디며 헌신해 준 아내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논문을 세심하게 지도해주신 주심 김용환 교수님과 부심 김남중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마련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이경식 부총장님과 안나 장학회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늘 응원해 주시고 귀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로고스교회 전준구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긴 학업의 과정에서도 끝까지 담임목사에게 큰 힘이 되어준 신나는교회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학업의 과정은 마무리되었지만, 클레어몬트에서 배운 신학적 성찰과 실천의 정신을 품고 다시 목회의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교회와 세상 속에서 아픔을 듣고, 세대를 연결하며, 복음 안에서 치유와 화해를 이루어가는 목회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클레어몬트 목회학 박사 과정을 졸업한 이주영 목사입니다. 처음 이 과정을 시작할 때, 솔직히 내심 불안했습니다. 바쁜 사역 현장에서 학업을 병행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너무 무리한 도전이 아닐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실제로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도 쉽지 않은 순간들이 많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오는 질문들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소그룹 안에서 반복되는 갈등, 지쳐서 결국 자리를 떠나는 리더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해 온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질문들을 제대로 붙들어야 한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사진: 이주영 목사, D.Min. '26〉

클레어몬트의 수업들은 그 흔들림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코즈모폴리턴 리더십, 상호의존성의 관점, 환대의 신학, 이 모든 수업들은 단순한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제가 목회 현장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비로소 보게 해 준 눈이 되었습니다. 리더의 소진은 개인의 한계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조적 문제임을, 갈등의 자리는 단절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맞아들이는 환대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배움을 바탕으로 소그룹 갈등을 경험한 여덟 분의 이야기를 질적연구로 깊이 들을 수 있었고, 그 목소리들은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분명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클레어몬트는 저에게 갈등 앞에서 멈추어 서게 해 준 곳이었고, 그 멈춤 속에서 제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붙들게 해 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귀한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진심으로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 함께 고민하고 격려해 준 동료 목사님들, 그리고 바쁜 사역 중에도 학업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김동현 담임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분들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성숙한 목회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사진: 인병재 목사, D.Min. '26〉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클레어몬트 신학대 학원 (CST)에서 목회학 박사(D.Min.) 과정을 마치게 된 인병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학업의 여정은 마치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가는 과정과도 같았습니다. 처음 이 길을 시작하며 품었던 가장 큰 고민은 ‘과연 현장 사역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바른 선택인가’였습니다. 교회 안팎의 분주한 업무와 목회적 책임들 사이에서 학업은 때로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고, 체력적, 정신적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갈림길에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것은 김남중 교수님의 세심한 권면과 따뜻한 응원이었습니다.

저의 고충을 깊이 이해해주시고, 목회자로서 이 배움의 과정이 갖는 가치를 일깨워주신 교수님의 지도가 없었다면 오늘 이 졸업의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의 인내와 가르침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학업은 단순히 신학적 지식을 쌓는 시간을 넘어, 목회자로서의 ‘생각의 틀’을 재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글쓰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저는 이전보다 더 명료하게 복음의 가치를 사유하고 전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이 단순히 기록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목회와 삶을 정제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놓아두는 과정임을 깨달게 된 것은 이번 과정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또한, 이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준 귀한 동료 목사님들과의 만남은 제 목회 인생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각자의 사역지에서 겪는 고민들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했던 시간들은 고립되기 쉬운 목회자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묵묵히 기다려주신 어부들교회 성도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목회자가 잠시 학업이라는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시간을 너그럽게 품어주시고, 뒤에서 끊임없는 기도로 응원해주신 성도님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제가 무사히 이 과정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현장의 목회자로,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곳에서 배운 신학적 성찰과 글쓰기를 통한 묵상을 밑거름 삼아, 어부들교회 공동체를 더욱 신실하게 섬기는 일에 제 모든 정성을 쏟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학업의 마침표를 찍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목회자의 본질을 잃지 않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을 졸업한 최진모 목사입니다. 먼저는 이 학문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랑과 배려, 따뜻한 권유와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동문이신 김동현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은평감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던 중 박사과정을 시작하였고, 이후 돈암교회 담임목사로 부름을 받아 새로운 목회적 책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학업과 목회를 병행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치열한 목회 현장 속에서 오히려 더 실제적이고 절실한 질문들을 붙들고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최진모 목사, D.Min. '26〉

제 논문 제목은 「기독교대한감리교회 3040세대의 관계적 갈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환대 신학과 상호의존성을 통한 목회 돌봄의 변혁」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저는 교회 안의 갈등을 단지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화와 구조, 그리고 목회 돌봄의 방식 속에서 함께 성찰해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환대의 신학과 상호의존성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맞이하고 함께 세워 가는 목회의 본질을 다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클레어몬트에서의 배움은 제게 지식의 확장을 넘어, 목회자로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매 수업을 통해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얻었고, 그것을 실제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었습니다. 특별히 논문을 세심하게 지도해 주신 우진성 교수님,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격려와 믿음으로 붙들어 주신 김남중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온 돈암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목회팀, 그리고 함께 배우며 격려를 나누는 동료 목회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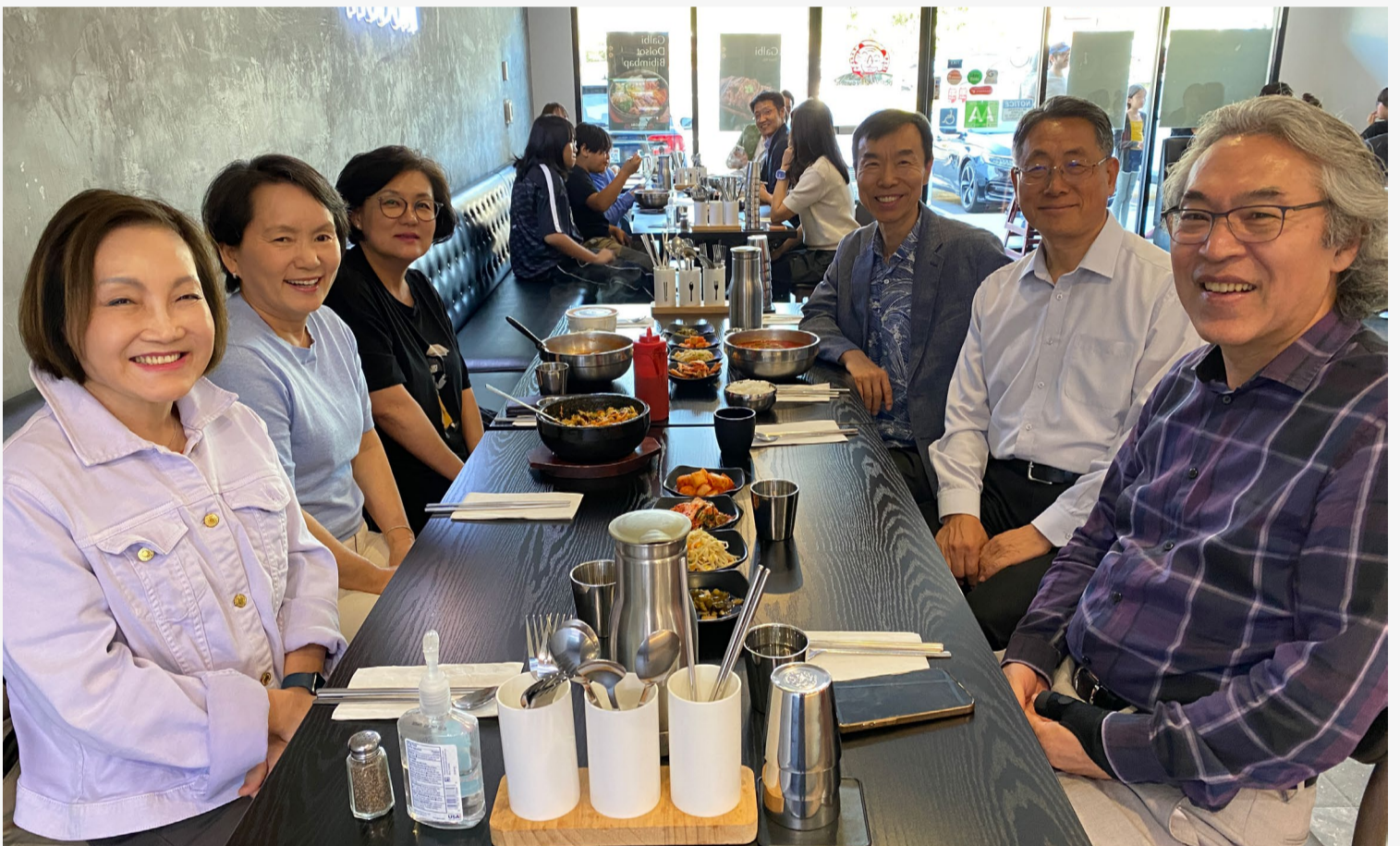
이번 박사과정은 제게 단지 학위 취득이 아니라, 앞으로의 목회 방향을 더욱 분명히 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었습니다. 앞으로도 3040세대를 비롯한 청장년들, 더 나아가 교회 안의 모든 세대가 깊이 이해받고 환대받으며, 상호의존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목회 돌봄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고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e Center for Korean American Ministry 이사회, 2027년 '한인 이민교회 미래 포럼 & 토크 콘서트' 개최 결정

5월 18일 종강 및 졸업 축하 행사를 마친 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 산하 한인목회센터(The Center for Korean American Ministry)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사진: 종강/졸업 예배에서 설교하는 이영성 목사〉



〈사진: 종강/졸업 예배와 파티에 한인목회센터 이사와 사모들이 함께 하다〉

한인목회센터는 2025년에 설립되었으며, 이창민 이사장, 이영성 부이사장, 이상영 총무, 전재홍 서기, 안정섭·김남중 이사, 그리고 이경식 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센터는 CST와 한인 교회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건강한 신앙과 균형 잡힌 목회 비전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센터는 설립 첫해인 2025년에 강남순 교수를 초청하여 공개 강좌를 개최하였으며, 2026년에는 이경식 수석부총장이 남가주 지역 8개 한인 교회를 순방하며 설교와 강연을 통해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만나고 있다. 이러한 사역을 통해 한인 교회와 신학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신앙과 목회의 다양한 과제를 함께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2027년 주요 사업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그 핵심 사업으로 '2027 한인 이민교회 미래 포럼 &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행사는 2027년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며, 한인 이민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목회적 비전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목회센터는 앞으로도 한인 교회와 신학교, 그리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감당하며, 한인 이민교회의 건강한 발전과 미래 세대의 신앙 형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갈등의 시대, 치유와 화해의 목회와 신학을 묻다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 2026년 여름 Zoom 집중 수업 개최

CST의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D.Min.) 한국어 과정이 2026년 여름, 다시 한번 한국, 미국, 베트남, 라오스, 캐나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목회 현장과 긴밀히 연결되는 배움의 장을 연다. 오는 7월 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중 수업은 Zoom 기반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운영되며, 두 개의 수업은 각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3시간씩, 각 10회씩 진행되어 총 20회의 집중 강의로 이루어진다.

이번 여름 과정은 단순한 학문적 훈련을 넘어, 갈등과 분열,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신학이 어떻게 치유와 화해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시간이다. CST 한국어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은 “갈등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변혁”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지역 목회와 글로벌 신학을 연결하는 실천가능한 교육 모델을 발전시켜 왔다. 2026년 여름에는 조혁 교수와 전희천 교수가 각각 상호문화 신학과 포스트모던 신학을 중심으로 강의를 이끈다.



〈사진: 조혁 교수〉

조혁 교수는 상호문화 신학과 목회 영역에서 활발히 연구와 교육을 이어 온 신학자로서, “상호문화 신학과 영성: 치유, 화해, 그리고 변혁적 참여”는 문화적, 종교적 다양성 속에서 타자와의 책임 있는 관계 형성을 핵심 주제로 삼는다. 역사적 상처와 갈등을 직면하면서도,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 종교 간 대화, 탈식민주의 실천을 통해 치유와 정의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특히 “사이 공간(in-between space)”에서의 안전한 대화와 포용적 영성 형성을 강조한다.



〈사진: 전희천 교수〉

전희천 교수는 오랜 현장 목회와 교단 교육 경험을 토대로 포스트모던 신학과 목회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신학자로서, “포스트모던 신학(Postmodern Theologies): 탈식민주의적 문제제기와 권위주의 시대 속 화해의 신학”은 근대에서 포스트모던으로 이어지는 신학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탈식민주의, 해방신학, 데리다의 해체철학(환대, 차연 등)을 중심으로 신학의 공공성과 예언자적 역할을 탐구한다. 또한 신학이 목회와 공동체 형성, 공적 증언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성찰한다.

이번 집중 수업은 “신학은 오늘의 세계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에 두고 진행된다. 현재 이 과정은 한국,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캐나다, 미국 등 다양한 지역의 목회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학습 공동체로 성장해 왔다.

교육 구조는 여름 Zoom 집중 수업과 겨울 한국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3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총 108명의 졸업생과 108개의 실천신학 연구 프로젝트를 배출하며, 이 과정은 목회 현장과 직결된 실천 신학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6년 여름에도 25~26명의 박사과정 학생들이 참여하여, 서로 다른 문화와 목회 현장을 연결하는 신학적 대화를 이어간다. 이 과정은 단순한 온라인 수업을 넘어, 세계의 갈등과 상처 속에서 치유와 화해의 신학을 함께 모색하는 살아 있는 배움의 장이 될 것이다.



〈사진: 2026년 1월 D.Min. 과정 수업 현장〉

DPC 과정에서의 배움과 성찰



〈사진: 이성지 목사, DPC 2기생〉

안녕하세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전문상담박사과정 (DPC) 2기에 재학 중인 이성지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며 1월부터 진행된 두 과목의 수업이 어느덧 5월을 맞아 마무리되었습니다. Human Relationships & Counseling: Family & Gender 수업에서는 젠더와 섹슈얼리티가 인간관계와 삶 전반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개인의 성격이나 심리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사람을 이해하려 했다면, 이 수업을 통해 사회 구조와 문화, 권력관계가 개인의 경험과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주의 상담과 관계문화치료(Relational-Cultural Therapy)의 관점을 배우며,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라기보다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상처받는 존재라는 점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Research Methods in Counseling 수업에서는 상담 연구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선행 연구를 분석하며, 연구 질문과 방법론을 연결해 가는 과정을 수업과 과제를 통해 단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연구 주제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진행하게 될 연구가 단순히 학문적 결과를 도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담 현장에 도움이 되는 실천적 의미를 지녀야 한다는 점을 배우며 상담 연구의 책임감과 중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수업을 통해 상담은 결국 사람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Human Relationships & Counseling: Family & Gender 수업이 인간을 이해하는 시야를 넓혀 주었다면, Research Methods in Counseling 수업은 그러한 이해를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를 만날 때에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와 사회적 맥락을 함께 이해하려는 태도를 잊지 않으려 합니다. 또한 근거 있는 연구와 지속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공감과 전문성을 함께 갖춘 상담자로 성장해 가고자 합니다.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Healing &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전문상담 박사 과정 입학설명회

Doctor of Professional Counseling

전문상담 박사(DPC) 과정은 상담학 석사 이상 상담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영성통합 상담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해외 유학 없이 한국에서 Claremont School of Theology의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실천 중심의 과정입니다.

전문상담 박사(DPC) 과정

- 한국에서 수학하며 미국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박사 학위 취득
- 상담 현장 중심 커리큘럼 (이론 + 실제 사례 적용)
- 목회상담 + 심리상담을 통합한 영성 기반 전문 상담 교육
- 한국 주요 상담협회 1급 자격증 지원 요건 충족 가능

교수진

이경식, Frank Rogers, Jr, 정푸름, 유상희, 김용환, 김남중, 김정희, 송민환, 김지훈

학 제

온라인+ 대면 수업
하이브리드 포맷 진행

총36학점(한 과목당 4학점)
겨울, 봄, 여름, 가을 학기제로 운영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Doctor Of Professional Counseling
졸업장 수여

지원자격

1. 대학원에서 상담학, 상담 관련분야 등 석사 학위 취득한 자 (심리학, 교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청소년/지도학)
2. 교육부가 인정한 상담학(또는 관련 분야)학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 경력에 있는 자
3. 한국 교육부가 정한 바에 (1)또는 (2)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4. 상담학 석사와 더불어 기초 신학 과목(조직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을 학부 석사 과정에서 이수한 자
신학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치유상담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여 기초 신학 과목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

링크를 통해 원서 작성 <https://cst.edu/apply-now/>
(한글로 제공하는 입학 원서 작성 문서를 여기에서 다운 받으세요.)

* 6기생은 가을학기를 위해서 7월 25일 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

등록금/장학금

등록금은 한 학점당 미화 \$1,100이며,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논문

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며, 한국교육학습정보관에 영어 논문 제출을 원하는 자는 한글 완성 후, 영어로 번역하여 제출 가능, 지도 교수 2명의 논문 지도를 받으며 논문 최종 단계에서 구술시험을 통과하여 졸업

입학설명회 일정

온라인
(ZOOM) | 5월 9일, 23일
6월 13일, 27일
7월 11일, 25일

토요일 오전 09시
ZOOM ID : 883 000 4676



대면 | 05월 23일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5층 501호
토요일 오후 12:40

2025-2026년 기부 현황

차세대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 기준 -

이경식 부총장
육성수 목사
보라매열린교회 (육성수 담임목사)
이종오 박사
이한슬 박사과 이레이첼 박사
LA 연합감리교회
정동제일교회
강신욱 목사
월셔연합감리교회
박성숙 사모

임용빈 장로
이창순 목사
이삼희 장로
박정은 박사
김웅민 목사
신영각 목사 신영기 사모

*성함은 기부일자 순입니다.

기부총액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1일 기준): \$193,485

- KEF 잔액(1990.03 - 2026.06):	\$2,611,654
- KLS 잔액(2018.10 - 2026.06):	\$873,483
- General Fund(2024.03 - 2026.06):	\$13,728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Center For Korean American Ministries

-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 기준 -

개인 후원

이병준 회장
이상영 목사

단체 후원

남가주 한인 여선교회 연합회 (Sue Kim 회장)
드림교회 (최요셉 목사)
서부지역연회 (Grant Hagiya 감독)
예수동행교회 (안정섭 목사)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남재현 목사)
월셔연합감리교회 (이영성 목사)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 목사)
크리스찬위클리 (조명환 목사)
Cal-Pac 연회 한인 코커스 (이석부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안정섭 목사)

*본 명단은 가나다 및 알파벳 순입니다.

기부총액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 기준): \$14,500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